

거리두기 1단계 준수 요청

정부, 기존 3단계서 5단계 세분화… 군산시, 방역수칙 주의 당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7일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 품질통 등유흡연점, 단란주점, 강성주점, 콜라텍, 허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둔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노래와 음식제공이 금지되며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둔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룸은 비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할 수 있다.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150㎡이상) 등은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등은 기본방

역수칙이 의무화 되는데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이뤄진 상태에서 운영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잘 준수되어야 1.5단계, 2단계 등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환경봉기자



군산대학교 취업지원과 대학일자리센터는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면접 후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시상식을 진행했다.

군산대, 면접 스킬 향상 프로그램 활성화

면접후기 경진대회… 우수 후기작 가이드북 제작·활용

군산대학교 취업지원과와 대학일자리센터는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면접 후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 경진대회는 최근 청년채용과정에서 면접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각 기업체가 신입사원 채용시 면접 평가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진대회를 통해 현실감각은 경험담을 공유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되었다.

경진대회에는 졸업생 및 재학생 70명이 참여했다. 면접관으로 활동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졌고 충실히 객관성 정

보전밸류,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작을 선발하여 총 21명의 학생들에게 시상했다.

군산대학교 정승우 학생처장은 ‘면

접후기 경진대회가 재학생 및 취업준

비생들에게 선배들의 다양한 면접 경

험을 공유하고 실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앞

으로도 실제적인 경험이나 정보를 공

유하는 기회를 주는 양질의 프로그램

을 더 많이 운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대학교는 면접후기 경진대회에

공모한 우수 후기작들을 정리하여 면

접 가이드북으로 제작하고 배포할 계

획이다.

/군산=남현봉기자

(주)군산도시기자스(대표 윤인식)

에서 설치를 후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과열방지장치가 부착된 가

스레인지를 설치함으로써 음식물

조리 등 잡кан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과열방지기능 가스레인지를

지원받은 김 모(77)씨는 “귀도

어둡고 깜빡깜빡해 가스를 제

대로 확인하지 못해 놀라울 때

출하는 것도 걱정스러웠는데 가스

레인지를 지원받아 걱정을 한

시름 놓을 것 같다”며 거듭 고

미워했다. /군산=환경봉기자

‘의산愛 주소 바로갖기’

길거리 캠페인잇따라

의산시 홍보담당관 직원들이 지난 6일 중앙체육공원과 신흥정수장 일원에 마련된 ‘나이로움 행복정원’에서 시민들에게 ‘의산愛 주소 바로갖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인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의산에 주소 갖기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주택·일자리·출산보육 등 주요 분야별 인구정책을 홍보하고 의산시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지원 혜택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했다. 특히 의산에 거주하면서 아직까지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주소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산=정양원기자



정현율 익산시장은 지난 6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과 익산의 철도교통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광대병원, 정신과 ‘입원 치료 잘하는 병원’

심평원 평가 결과 ‘1등급’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등 9개 지표를 평가했다.

특히 원광대병원은 주당 개인 정신 치료 실시횟수 지표가 동일종별의 평균 5.3보다 높은 6.4를 기록했고 조현병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의뢰율 지표에서도 동일종별 평균 97.3% 보다 높은 100점을 기록해 치료와 의료서비스 연계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원광대병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아 정신과 입원 치료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자의 빠른 치유와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윤권하 병원장은 “본원이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환자중심의 진료를 시행하는 노력의 결과라며 소감을 전했다.

/의산=정양원기자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7개 교육기관 동참

지역의 인구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극복해나가기 위해 추진 중인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에 교육기관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시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의 7개 교육기관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과 인구문제에 동참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협

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학장 박물진), 한국폴리텍대학(학장 차신태), 남성고등학교(교장 강인상),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교장 최재석), 익산고등학교(교장 오병도), 전북과학고등학교(교장 김효순),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두승)로 총 7

개의 교육기관이 함께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 지역 인구 늘리기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앞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 인구늘리기 관련 사업 발굴과 시행, 홍보 및 지원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교육기관은 인구문제 해결 및 자랑스러운 익산을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의산=정양원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